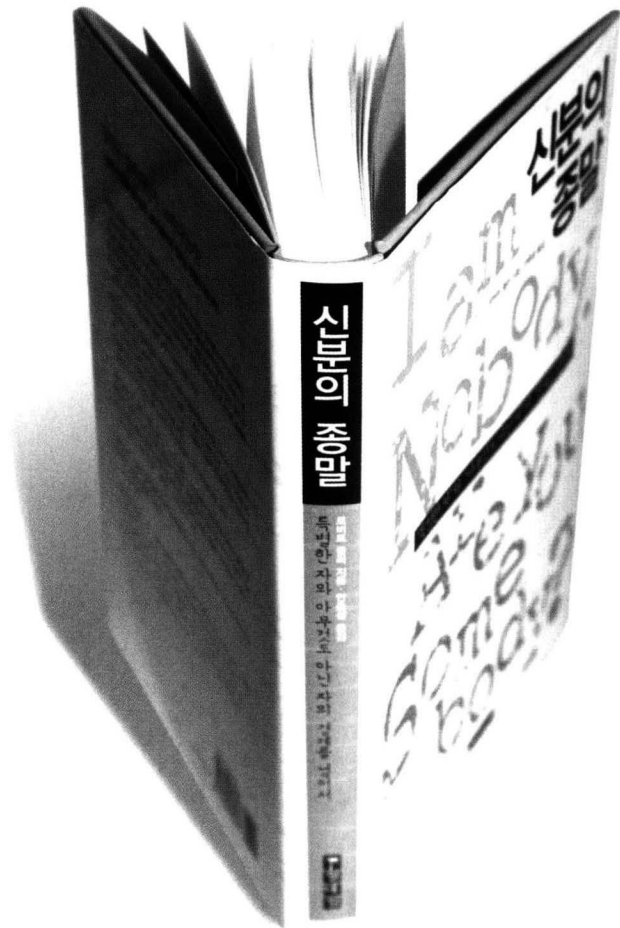


모든 악의 근원은 '완장' 주의



내가 컨설팅하는 회사를 처음 방문한 날이다. 회사가 시내 중심가에 있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빙빙 도는데 빌딩 책임자처럼 보이는 경비아저씨가 협상국은 얼굴로 왜 여기 주차를 하려 하나며 일행을 나무란다. '사장님'을 만나러 왔다 해도 막무가내다. 요지인즉 "이곳은 직원들 주차하기에도 힘든데 당신 같은 객들까지 주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누가 되었건 그 주변에 주차를 하는 사람마다 질책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누군가(somebody)가 나타나자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다. 고개가 90도로 꺾어지고, 그렇게 상냥하고 나긋나긋할 수 없었다. 아마 빌딩 주인쯤 되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이 도저히 방금 협한 얼굴로 야단치던 그 사람이라곤 믿을 수 없었다.

대기업 모 이사의 별명은 '기브스'다. 하도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고 부하직원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자신이 이사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래 직원들에게 전제적인 군주처럼 행동하고, 무리한 요구도 많이 한다. 술을 먹으러 갈 때도 자신의 차를 운전할 부하직원을 대동했고, 출근시간에는 주변에 사는 직원을 기사처럼 활용하기도 했다. 아무에게나 "야, 이게 뭐야" "너, 이리와 봐"라는 식의 하대가 그의 습관이였다. 그에게 이사란 계급은 신분의 상승을 의미했고, 그는 이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러던 그가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우연히 길에서 그를 만났던 사람이 그에 대한 최근 동정을 전했다. "사람이 완전히 상했어요. 예전의 도도했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예전에 윤희길의 장편소설 《완장》을 읽은 적이 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저수지를 지키는 권한을 갖고 완장을 차게 되면서 거들먹거리고 사람들을 학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신분이란 묘한 것이다. 신분이 있는 사람은 (Somebody)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별다른 신분이 없는 사람(Nobody)은 풀이 죽게 되는 것이다. 로버트 폴러가 지은 《신분의 종말》은 그런 신분의 의미에 대해 수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신분이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아무런 신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를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교훈을 준다.

"Everybody here used be somebody." 플로리다 양로원에 붙어 있는 말이다. '여기 있던 사람들도 한 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지금 섬바디라고 폼

이 글을 쓴 한근태는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애크론 대학에서 고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자동차 이사, IBS 컨설팅그룹 컨설턴트, 한국리더십센터 소장 등을 거쳤고, 현재 한스컨설팅 대표로 서울과학종합학교 교수, 환경재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나를 위한 롤을 만들어라》《40대에 다시 쓰는 내 인생의 이력서》《회사가 희망이다》 등이 있다.

을 잡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노바디가 될 수 있고 노바디 또한 언젠가 섬바디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계급과 신분에 따라 일회일비하거나 거들먹거리거나 풀이 죽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온 대목이다. “권력의 차이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권력의 차이를 한탄하는 것은 해가 달보다 더 밝다는 사실을 한탄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차이가 학대와 조롱, 수탈과 정복의 구실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대개 높은 지위를 장악한 사람은 권력을 업신여김, 불평등, 착취 등의 형태로 남용한다. 부하직원을 못 살게 구는 직장 상사, 웨이터를 괴롭히는 주방장이나 손님, 선수를 들들 볶는 코치, 교사를 모욕하는 교장, 조교를 착취하는 교수, 학생을 조롱하는 선생, 급우를 따돌리는 학생, 자녀를 알잡아 보는 부모, 용의자를 학대하는 형사, 환자를 아무렇게나 다루는 간호사... 신분주의는 아랫사람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노바디로 대함으로써 그들의 존엄성에 상처를 준다.” 존엄성을 해치는 것만큼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다. 존엄성이 상한 인간은 다른 형태로 이를 보복하려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신분주의가 모든 악의 근원이란 진단을 내린다. “신분주의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침식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왜곡하는가 하면, 경제적 생산성을 방해하고, 증오심을 유발한다.” 신분주의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일터에서의 역기능과 때로는 폭력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신분주의는 통치체제를 감염시키는 여러 질병의 뿌리, 일종의 암과 같다. 신분주의에 초점을 맞추면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부패하고 타락한 기업인에 대한 분노는 신분주의에 대한 분노이다. 성직자의 성폭력도 신분주의이다. 요양시설에서 자행되는 노인에 대한 학대 역시 신분주의이다. 연구원들의 성과를 가로챈 과학자의 행동도 신분주의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만큼 남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한다. 신분주의적 억압은 그 안에 패망의 씨앗을 숨기고 있다. 이런 불평등은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만약 자신이 현재 섬바디라 해도 자신의 제복에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높은 신분을 갖고 있다 해서 거기 집착하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노예근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신분이란 단기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나타내는 자리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섬바디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섬바디가 된다는 것은 대도시를 여행하는 것과 같다. 흥미롭기는 하

지만, 그만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번잡한 대도시를 떠나 편안하고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이처럼 섬바디와 노바디 사이를 오가는 것은 모든 현대인의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이다.

젊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공정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는 문제와 정면으로 맞부딪쳐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시를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남에게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먼저 된 자(섬바디)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노바디)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다. ✚



《신분의 종말》로버트 풀러 지음 | 안종설 옮김 | 열대림 | 332쪽 | 값 16,500원